

##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주요 Q&A

2017. 4. 20

## 금 융 위 원 회

### 1. 한국은행 가계신용과 금감원 속보치간 차이점은?

- ☐ 속보치에는 기타금융기관 등의 대출과 판매신용 등은 제외
- 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동향을 최대한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대응을 적기에 추진\*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

\* (예시) 최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하여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제2금융권의 총당금 적립기준을 선제적으로 대폭 강화('17.3월)

- 즉, 속보치는 정부의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중요 부문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함

- ☐ 이에 한은 가계신용의 포괄범위와 최대한 일치\*시키면서도,

\* '16.말 기준, 속보치 포괄범위는 가계신용의 약 86.6% 수준(1,164조원)

- 속보치 취지를 살려 ①변동이 거의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, ②당국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은 제외

| (단위 : 조원, %) | '16.말<br>잔액(C) | 비중<br>[C/(A+B)] | 최근 5년간<br>변동액 | 속보치<br>포함 여부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예금은행         | 617.4          | 45.9            | 161.6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|
|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  | 291.3          | 21.7            | 107.5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상호저축은행       | 18.3           | 1.4             | 8.1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|
| 신용협동조합       | 36.7           | 2.7             | 16.9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|
| 상호금융         | 171.1          | 12.7            | 52.5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|
| 새마을금고        | 64.0           | 4.8             | 30.4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|
| 신탁·우체금융      | 1.2            | 0.1             | △0.4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|
| 기타금융기관 등     | 362.9          | 27.0            | 141.1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보험기관         | 108.7          | 8.1             | 34.0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|
| 연금기금         | 13.0           | 1.0             | △0.6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|
| 여신전문기관       | 55.2           | 4.1             | 16.4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|
| 공적금융기관       | 34.0           | 2.5             | 3.6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|
| 기타금융중개회사     | 138.8          | 10.3            | 81.7          | △(주금공<br>양도분 92.6) |
| 기 타          | 13.2           | 1.0             | 6.1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|
| 계 (가계대출 : A) | 1,271.6        | 94.6            | 410.2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(판매신용 : B)   | 72.7           | 5.4             | 17.9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|
| 가계신용(A+B)    | 1,344.3        | 100.0           | 428.1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## 참 고

### 속보치 제외 항목 상세 이유

#### ① 신탁·우체급여금

- 장기간 큰폭의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대출규모가 유지

#### ② 연금기금 (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)

- 장기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, 연금수급(예정)자에 대한 대출로 리스크수준도 낮은 편

#### ③ 공적금융기관 (주택도시기금, 한마음금융, 신용회복기금 등)

- 정부의 정책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출로 기금운용계획, 국회승인 등 공인된 별도절차에 따라 대출규모가 관리

#### ④ 기타금융중개회사 (주금공 양도분, 증권사, 대부사업자 등)

- 속보치에 포함되는 주금공 양도분(정책모기지)이 잔액의 상당 부분(66.7%), 변동액의 대부분(82.4%)을 차지\*

\* 주금공 양도분 제외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최근 5년간 변동액은 14.4조원 수준

- 증권사 대출 등은 매주 속보치 집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
- 아울러, 대부사업자는 정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도 관리중

#### ⑤ 기타금융기관 등의 기타 (한국장학재단, 보훈기금 등)

-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1%수준으로 작으며, 공적 목적을 위해 정부 승인 등 공인된 별도절차에 따라 대출규모가 관리

#### ⑥ 판매신용

- 카드사용액, 할부금 등 가계의 소비활동\*과 관련된 것으로, 속보치를 토대로 선제적 관리를 적용하는 데 부적절한 측면

\* 실제로 '16.4분기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, 신차 특판으로 판매신용이 큰폭 증가

※ 참고로, 현금서비스, 카드로 등 여신전문기관 대출은 가계대출에 포함하여 집계

### 2. 속보치를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, 향후에도 지속 발표할 계획인지?

- ☐ 속보치 발표를 통해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,

-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여 정책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

- 가계대출 속보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발표할 계획 (월 1회 원칙)

- ☐ 아울러, 한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통계 개선작업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예정